



김은경, 박다운 작 'P·P(production point)'

/광주문화재단 제공

미디어아트 속 반도 전자상가

장동콜렉티브 '믿음∞ : 여긴 믿음 있고...' 전 기억 속으로 사라진 낙후 공간 활기 불어넣어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0 청년 문화생태계조성사업-뫼단배 프로젝트' 기획 전시를 반도전자상가 건물 2층 유희 공간을 활용해 선보인다.

'믿음∞: 여긴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를 제목으로 한 이번 전시는 공공미술로서의 미디어아트를 활용, 반도 전자상가 재생을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독립큐레이터 팀 장동콜렉티브(김소진, 이하영)는 사회·문화 속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된 예술 실천적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번 전시 또한 낙후된 지역으로 사라져가는 도심 속 공간을 예술 작품을 통해 기록하는 동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했다.

장동콜렉티브는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은경, 박다운, 이부리, 정덕용 네 명의 청년 작가들과 함께 지난 여름부터 광주 대인동에 위치한 반도전자상가 일대를 조사하고 상인들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반도 전자

상가와 전자의 거리 일대의 역사와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예술작품으로 풀어내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전시는 장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는 공공미술로서의 미디어아트의 역할에 주목, 광주 전자 산업 역사를 담고 있는 반도전자상가의 장소성을 살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예술 작품을 통해 잊혀져 가는 장소를 기록하고 활성화하는 동시에 묵묵히 일터를 지키고 있는 반도전자상가 상인들에게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디어와 설치, 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오가며 작품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김은경, 박다운 작가는 팀을 이뤄 영상과 거울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상인들을 인터뷰해 기록되지 않은 기억들을 수집하고 이를 재해석한 영상작품도 제작했다. 이들은 영상을 거울에 반사시키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은 이 전시를 관람하며 반도전자상가 상인들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낯선 공간 안에 머물게

된다.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시에 입주,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이부리 작가는 칸과 층으로 된 공간 구조에 주목했다. 이 작가는 개인적 경험에 반도 전자상가라는 장소에서 받은 인상을 더해 과거의 풍경을 상상하며, 유희공간을 옛 이야기를 전하는 악기의 울림통으로 탈바꿈시킨다.

정덕용 작가는 반도전자상가라는 일터가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모한 모습에 주목했다. 그는 상인들을 만나 나누는 대화를 바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제작, 이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의 개개인의 삶과 역할을 유의미하게 조명한다.

장동콜렉티브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발성 전시로 끝나지 않거나 반도 전자상가 내 유희 공간들을 청년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 상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꾸준히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오지현 기자

청년예술인들이 노래하는 삶의 이면

보체 창작뮤지컬 '예술인 표류기' 오늘 공동예술극장

광주 청년예술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삶을 노래하는 창작뮤지컬 무대가 열린다.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광주문화재단 '2020청년문화생태계조성사업-뫼단배 프로젝트' (이하 뫼단배 프로젝트) 선정단체인 '보체'가 24일 공동예술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예술인 표류기' 초연을 선보인다.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뫼단배 프로젝트'에는 현재 맥거핀, 보체, 50gHD, 먼밀, 장동콜렉티브 등 총 5팀이 참가하고 있다.

창작뮤지컬 '예술인 표류기'는 청년 예술인들의 삶을 주제로 낯설고 외딴 섬에 떨어져 벌어지는 표류기처럼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외로움이 가득 찬 세

상에 던져져 표류하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다. 배우가 드러내는 익살스러움과 재미 요소 속에 숨겨진 예술인들의 모습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삶의 이면을 조명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보체'의 이름을 걸고 만든 첫 번째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보체'는 2020년 설립된 신생 문화예술단체로 이번 '뫼단배 프로젝트'를 통해 단체의 색깔을 보여주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보체 멤버인 박찬민과 박원오는 "광주 내에서 내수 제작과 소비가 가능한 문화 예술 콘텐츠 시장을 만드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공연은 기술적인 테크닉보다는 청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연은 24일 오후 7시 공동예술극장, 입장료는 무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좌석수는 40석으로 제한한다.

/오지현 기자

DRIVE IN ACC



차 속에서 즐기는 공연·뮤지컬

내일 광주자동차극장 '예술날개 트레일러' 28~29일 ACC 아시아문화광장 깜짝 변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이 스트레스를 풀고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동차에서 즐기는 공연이 마련된다.

◇장애·비장애 예술인 무대 함께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25일(오후 5~7시) 북구 우치공원 자동차극장에서 장애·비장애 예술인 연합공연인 '예술날개 트레일러'가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장애 예술에 대한 편견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날에...'를 주제로 한 이동공연이다.

풍물패 두드림의 퓨전국악 공연과 광주뿌리한국무용단의 웅북합공연이 행사 시작을 알린다.

이러 장애·비장애 예술인이 함께 무대에 서는 작품으로 소프라노 김선희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리넷 장성규와 발달장애를 가진 색소폰 임은규와 함께 팝 음악 'IF'를 비롯, 양희은의 '가을편지'와 영화 '미션'에 삽입된 명곡 '넬라 판타지아' 등을 차례로 들려준다.

기수 호란이 사회를 맡은 2부 공연에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강상수가 광주 출신 트롯 가수 김연자와 함께 콜라보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 관람은 사전에 선착순 예약한 차량 100대로 한정해 입장 가능하며, 추가관람객은 지역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단체 나눔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관람 신청 접수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링크된 구글폼을 통

해 접수 가능하다. 무료 관람.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노트르담 드 파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오는 28~29일 이틀 동안 ACC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자동차극장 '드라이브 인 ACC'를 개최한다.

깜짝 자동차극장 형태로 운영되는 '드라이브 인 ACC'는 관람객이 자동차를 운전해 아시아문화광장으로 들어와 차 안에서 대형 스크린 뮤지컬 공연실황 영상을 관람하게 된다.

28일 '오페라의 유령', 29일엔 '노트르담 드 파리'를 저녁 7시30분 각각 상영한다.

승용차 30대·SUV 18대 등 모두 50대 이하로만 운영한다. 차량 1대 당 최대 탑승 인원은 3명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관람할 수 있다. ACC 누리집에서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입장권은 무료다. /이연수·오지현 기자

전남매일 연중 캠페인

2020 광주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으로
평소 살던 집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